자동차

비중확대(유지)

CES 2019 Preview

지난 CES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응용 서비스에 집중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 2019가 1월 6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1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다. 자동차의 전시비중이 매년 커지면서 미래기술 경연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CES를 돌이켜보면 2017년에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 경쟁이 핵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라이다 등 센서(Velodyne, NXP 등), 통합 ECU(엔비디아, 모빌아이), 고정밀 지도(Here, TomTom)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다. 2018년에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스마트시티)과 무인자율주행을 응용한 파생서비스에 논의가 집중됐다(2018/1/15 'CES 2018 후기: 자율주행 꿈을 현실로' 참조).

이번 CES에서는 인포테인먼트, 5G, 모빌리티에 주목

이번 CES 2019에서 자동차 관련 주목할 내용은 차내 인포테인먼트(Information+Entertainment)의 진화, 5G의 확산,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as-a-Service: MaaS)의 현실화다. 모두 5단계 무인자율주행을 염두에 둔 내용들이다. 먼저 인포테인먼트는 자동차/IT/미디어 회사간 경쟁과 협업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한편 5G는 미국이 2018년 말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면서(고정형 기준) 킬러 서비스로 자율주행과 IoT, 스마트시티 등이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의 경우 차량공유 업체에서 MaaS 업체로 진화 중인 우버(Uber)와 리프트(Lyft)가 2019년에 IPO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꿈은 이미 현실로, 그 다음 꿈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2018년 12월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운전기사 없이 달리는 로보택시(Robo-taxi) 시대가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과거 2~3년간 CES와 달리 자율주행은 더 이상 가슴 뛰는 단어가 아닌 양산시기와 전략이 결부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이번 CES에서는 무인자율주행 다음의 비전으로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에어택시(Air taxi) 또는 플라잉카(Flying car)라는 이름으로 주요 모빌리티 업체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업체별 관전포인트

주요 업체별 관전포인트를 표로 정리했다(표 1). 아우디는 디즈니와 손을 잡고 차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개한다. 버라이즌은 기조연설을 통해 5G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래 모빌리티 전략과 신기술을 공개한다. 모비스는 인포테인먼트 관련 신기술과 수소연료전지모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선보인다.

김진우
jinwoo.kim@truefriend.com

<표 1> CES 2019 참석 자동차업체 및 주요 공개 내용

참석기업	공개 내용
현대차	- 미래 모빌리티 전략 발표 예정.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등과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비전 공개 - 스위스 웨이레이와 공동개발 중인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등 차세대 기술도 공개 - 최근 승진한 알버트 비어만 R&D 담당 사장과 삼성 출신 지영조 전략기술본부장(사장) 등 R&D 핵심임원 참석
기아차	- '감성 주행의 공간(Space of Emotive Driving)'을 테마로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방향성 공개 - 운전자와 차량이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l-time Emotion Adaptive Driving, R.E.A.D.)'를 선보일 예정 AI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R.E.A.D.시스템은 생체 정보 인신을 통해 운전자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차량 내 환경을 최적화
현대모비스	- '포커스 온 더 퓨처(Focus on the Future)'를 주제로 '가상공간 터치 기술' 등 미래차 관련 신기술을 대거 선보일 예정 가상공간 터치 기술은 운전자의 눈과 손짓을 인식해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등을 화면을 누르지 않고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 탑승자의 감정 상태를 판단하여 주변 차량과 공유하거나 조명, 음악 등에 변화를 주는 기술도 공개 - 자율주행 모드에서 전면 유리창에 영상을 투여하는 유리창 디스플레이도 소개 - 수소연료전지모듈 발전시스템도 공개
Audi	- 디즈니와 협업한 차량용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개 예정.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전제로 '25 번째 시간' 활용법 제시 주행 중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도로용 엔터테인먼트 포맷(on-the-road entertainment format)과 정지 상태에 더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영화관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차량 내 몰입형 엔터테인먼트(Immersive In-Car Entertainment) 기술을 선보일 것
Honda	- 인공지능 이동 로봇 '패스봇(PATH Bot)', 자율주행 작업차(Autonomous Work Vehicle), '혼다 RaaS 플랫폼' 등의 다양한 로봇 기술을 선보일 예정 - 패스봇은 주변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며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이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 자율주행 작업차는 부가 장치의 장착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이동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제초 작업, 장비 운반, 정찰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 - 혼다 RaaS 플랫폼은 데이터 축적 및 공유, 통신제어, 로봇간 연결 등의 공통 기능을 API 나 SDK 형태로 제공하여 로봇 솔루션 개발을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Mercedes-Benz	- Benz 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가 탑재된 2 세대 신형 CLA 공개 예정 MBUX 는 터치스크린으로 조작되는 와이드스크린 콕핏(Widescreeen Cockpit), 증강 현실 기술을 적용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Navigation Display), 지능형 음성 제어 기능을 포함 - 그 외 순수 전기 SUV EQC 와 Vision URBANETIC 의 미국 데뷔 예정
Nissan	- 새롭게 개발된 커넥티드 드라이빙 기술 공개 예정.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기술로 자세한 내용은 CES 를 통해 공개 - 신형 LEAF 의 레이싱카 버전인 LEAF NISMO RC 의 미국 데뷔 및 EV 크로스오버 컨셉트카 Imx KURO 도 전시 또한, LEAF 의 장거리 모델인 LEAF E-Plus 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
BMW	- 19 년 3 월 출시 예정인 디지털 보조 시스템 BMW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가 공개될 예정. 목소리를 통해 각종 질문 및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스피커를 사용하여 차량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 - 부분자율주행 SUV 전기차 'Vision iNext' 컨셉트카 전시. 2021 년 출시 예정

자료: 각 사, 언론종합,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

- 매　　수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　　립 : 시장 지수 대비 -15~15%p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

■ 투자등급 비율 (2018. 9. 30 기준)

매수	중립	비중축소(매도)
77.8%	22.2%	0%

※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
- 중　　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